

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이행 현황

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현황 및 계획

구분	2023년 1분기말	2023년 2분기말	2023년 3분기말	2023년 4분기말	2024년 1분기말	2024년 2분기말	2024년 3분기말	2024년 4분기말
실적	25.7%	27.7%	28.7%	30.4%	31.5%	32.4%		
계획				30.0%				30.0%

$$\text{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(\%)} = \frac{\text{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*}}{\text{가계 신용대출}} \times 100$$

* 개인 : 신용등급 4등급 이하(신용평점 하위 50%(KCB 865점 이하)) 차주에 대한 대출

** 개인사업자 : KCB소호CB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

※ 23년 : 개인신용대출만 중저신용자 비중 산정(말잔)

※ 24년 : 개인신용대출 + 개인사업자대출 중저신용자 비중 산정(평잔)

② CSS 고도화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

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지속적인 공급과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CSS 고도화,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

[대안정보 신용평가모형 적용]

카카오 계열사 정보, 도서구입 정보, 자동이체 정보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하였고 중신용자·금융이력부족자(Thin-filer)의 대출 심사에 적용

[대환대출 신용평가모형 적용]

대환플랫폼 출시에 대비, 대환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타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한 고객(중저신용 고객 포함)의 대환대출 심사에 적용

	시기별 추진 계획
2024년 1분기 (완료)	- 중·저신용 유입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신청평점모형 재개발 - 중신용대출 취급이 대폭 확대된 21년 이후 유입된 중신용대출 신청, 실행건을 포함하여 신청평점모형 고도화 - 이커머스 셀러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- 플랫폼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의 대출기회 확대 및 우량 고객 선별을 위한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
2024년 2분기 (완료)	- 재개발된 신청평점모형을 여신심사에 적용 - 이커머스 셀러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진행 - 대안신용평가모형(카카오뱅크스코어) 고도화를 위해 추가 활용 가능한 대안정보 취득 - 기존 활용중인 대안정보 외에 차량이용정보/유통소비정보/타행이체정보 등 추가 대안정보 취득
2024년 3분기	- 이커머스셀러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여신심사에 적용 * 협업 대상인 플랫폼 업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데이터 취득 여하가 결정되므로 변동가능성이 존재함 - 대안신용평가모형(카카오뱅크스코어) 고도화 진행
2024년 4분기	고도화된 대안신용평가모형(카카오뱅크스코어)를 여신심사에 적용 * 모형개발 결과에 따라 대안정보 활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안신용평가모형에 최종적으로 활용되는 대안정보는 변동가능성이 존재함

③ 건전성 관리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

	시기별 추진 계획
2024년 1분기 (완료)	-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의 대손충당금적립률 265% - 2023년부터 선제적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제고
2024년 2분기 (완료)	2024년 3월 시행된 신용사면 대상자들의 향후 신용등급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130억원 규모의 충당금 오버레이(추가적립) 적용 →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의 대손충당금적립률 257% - 취약·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, 채무감면 제도 관련 지원 대상 내용 및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논의 진행 *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채무제도 정비 후 시행 예정 ** 24년 8월 내 “채무조정 내부 기준” 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상세 내용 확정하기로 논의함 - 재개발된 신청평점모형을 활용하여 가계 신용리스크정책 개선
2024년 3분기	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의 대손충당금적립률 모니터링 및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 검토
2024년 4분기	‘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취약·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, 채무 감면 제도 개편 및 적용 - 기존 카카오뱅크와 캠코 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취약 차주 지원 목적 자산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타 상품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 검토 예정 * 타 상품 확대 적용시 이르면 25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- 충당금 리스크측정요소(PD, LGD 등) 및 미래전망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손실흡수능력 제고